

보수용 페인트가 도료기업 살린다!

아파트 건축붐 따른 보수시기 도래 ... 내부용 감소하고 외부용은 증가

건축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해 페인트 신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용 페인트 시장이 그나마 페인트 생산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아파트 건축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보수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4년 1/4분기, 2/4분기 보수용 페인트 수요는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했으며 2004년 하반기에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축법상 공공주택은 일정기간 간격으로 보수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당분간 보수용 페인트 수요는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콘크리트 면적과 건축 허가면적이 증가해 외부용 보수페인트는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반면 라미네이트 증가로 목재용 페인트 시장이 감소하면서 내부용 보수페인트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3년 보수용 페인트 시장은 1300억~14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외부용이 60%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신규용 페인트 시장은 웰빙바람을 등에 업고 친환경 페인트 수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페인트 생산기업들이 앞다퉀 신제품 개발을 통한 신규수요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범의 기자>

<화학저널 2004/09/01>